

# 肺의 機能에 대한 研究

## -“相傳之官, 治節出焉”을 中心으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sup>1</sup>  
방정균<sup>1</sup> \*

### A Study on Lung's function-Focus on "the office of assisting Heart, the administration come out Lung(相傳之官, 治節出焉)" -

Bang Jung-kyun<sup>1</sup> \*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In the 『Somun(素問)·Youngranbijeonron(靈蘭秘典論)』, that describes the lung as "the office of assisting Heart, the administration come out Lung(相傳之官, 治節出焉)". The means of "the office of assisting Heart" is that Lung assist Heart and execute the Heart's order. The administration come out Lung has two means. The first, Lung administrates and controls the body. The second, Lung controls the Gi and blood(氣血).

In the 『Somun(素問)·Gyeongmaekboulron(經脈別論)』, that describes the creation of pectrol Gi(宗氣). The Essence derived from food(穀氣) digested in Stomach comes to Heart, and mixed Lung's Gi of respiration(呼吸之氣), than becomes a pectrol Gi(宗氣). The pectrol Gi(宗氣) controls the Gi and blood(氣血), and we can say that function is the administration come out Lung.

**Key words** : the office of assisting Heart(相傳之官), the administration come out Lung(治節出焉), pectrol Gi(宗氣), Lung

## I. 緒論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藏府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藏府는 인체의 가장 심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病變의 상태를 감지해 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서양의학에서는 초음파 등의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진단의 정확성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의료기기를 통해 藏府의 기능까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韓醫學에서도 藏府의 變證과 치료는 쉽지 않다. 특히, 『黃帝內經』에서는 藏府의 疾病, 變證 등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해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藏府가 인체의 심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藏府의 變化를 體表에서 감지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醫學에서는 “藏象”이라고 하여, 藏府의 기능이 體表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러므로 體表에서 발견되는 기능 이상을 통해 逆으로 藏府의 상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강원 원주시 우산동 660 번지.  
E-mail : jkbang@sangji.ac.kr Tel : 033-730-0666.  
본 논문은 2007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습  
니다.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體表에서 발현되는 藏府의 생리기능을 熟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각 藏府의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취택하여 정리하였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소략하기 때문에 本篇의 내용이 藏府의 기능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內經』全篇에 나타나는 藏府와 관련된 生理·病理의 내용들이 本篇의 내용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篇의 내용을 熟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藏府의 기능 가운데 肺의 “相傳之官，治節出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素問·經脈別論』의 문장 가운데 宗氣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 宗氣와 治節의 의미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相傳之官，治節出焉

肺는 『素問·靈蘭秘典論』에 “肺者，相傳之官，治節出焉”<sup>1)</sup>으로 기술되어 있다. 「靈蘭秘典論」에 기재된 藏府의 명칭이 고대 官職名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는 論外로 하고, 기능적인 부분만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相傳之官”의 의미에 대해서는 傅를 스승의 의미로 해석한 醫家도 있지만<sup>2)</sup>, 대부분의 醫家들은 輔佐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相傳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胡天雄은

相，助也；傅，輔也。相傳之官，即協助輔佐之官，是說肺對心有協助輔佐的作用。(相은 協助하는 것이다. 傅는 輔佐하는 것이다. 相傳의 官은 바로 協助하고 輔佐하는 官이니, 이것은 肺가 心에 대해 協助

하고 輔佐하는 작용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sup>3)</sup>

라고 하여, 肺가 心을 輔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馬蒔의 경우도

肺與心皆居膈上，經脈會于太淵，死生決于太陰，故肺爲相傳之官，佐君行令，凡爲治之節度，從是而出焉。(肺는 心과 함께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는데, 經脈이 太淵으로 모여들어 太陰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 난다. 그러므로 肺가 相傳의 官이 되어 임금(心)을 보좌하여 令을 行하게 되니, 모든 다스리는 절도가 이 肺를 쫓아 나오게 되는 것이다)<sup>4)</sup>

라고 하여, 肺가 心과 함께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면서 心을 輔佐하여 令을 行하고, 또 經脈이 太淵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死生이 太陰에서 결정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의 諸家의 설명이 위에서 언급한 馬蒔와 胡天雄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相傳의 의미는 크게 논란이 될 것이 없다.

그러나 “治節出焉”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肺가 인체에서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이다. 먼저 治節에 대한 王冰의 주장을 살펴보면 “主行營衛，故治節由之。(肺는 주로 營衛를 운행시키므로, 治節이 肺를 연유하는 것이다.)”<sup>5)</sup>라고 하였다. 王冰은 肺가 營衛를 운행시키는 것과 治節을 연계시킨 것으로, 張志聰도 陰陽 두 글자를 첨부시켜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sup>6)</sup>. 이들의 주장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으니, 이에 대해 吳崑은 王冰의 “主行營衛”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켰다.

3)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67.  
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76.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28.  
6)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84.  
“位高近君，猶之宰輔，主行營衛陰陽，故治節由之.”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34.  
2)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179.

相, 去聲. 位高非君, 猶之宰保相傳也. 主行營衛, 猶之調變陰陽而贊化理, 故曰治節出焉.(相은 去聲이다. 지위가 높지만 임금은 아니니, 宰保나 相傳와 같다. 주로 營衛를 운행시키니, 陰陽을 조화롭게 다스려 교화하고 다스리는 것을 돕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治節이 肺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sup>7)</sup>

이상과 같이 吳崑은 肺의 治節 기능에 대해 心이 (인체 진신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輔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肺가 氣를 주관하는데, 氣가 조절되면 營衛와 藏府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吳崑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 시켰다<sup>8)</sup>. 즉, 治節의 대상을 營衛와 藏府로 적시하면서 인체 진신임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肺가 氣를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心과 肺가 주관하는 氣血의 관계 속에서 治節의 의미를 해석한 醫家가 있다. 즉, 胡天雄은

心主血, 肺主氣, 血無氣不行. 治節, 管理調節. 心主身之血脈, 而肺爲之管理調節.(心은 血을 주관하고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血은 氣가 없으면 운행되지 않는다. 治節은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心은 몸의 血脈을 주관하는데, 肺가 心을 위하여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sup>9)</sup>

라고 하였다. 胡天雄은 肺가 心이 主하는 血의 운행을 돕는다고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心을 위하여 血脈을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胡天雄은 治節의 의미를 血脈과 연계시켰는데, 이를 “肺朝百脈”과 연계시킨 醫家가 있다. 高士宗은 肺가 百脈의 朝會를 받기 때문에 治節의 기능이 肺에서

나온다고 하였고<sup>10)</sup>, 張琦는 肺가 氣를 다스리고 皮毛를 주관하기 때문에 治節의 기능이 肺에서 나오고, 이러한 까닭으로 百脈이 위로 肺를 조회한다고 하였다<sup>1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治節의 의미에 대해서, 인체 진신을 다스린다는 주장이 있고, 구체적으로 血脈과 연계시켜 “肺朝百脈”과 관련시킨 주장이 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治節의 대상을 血脈과 관련시킬 경우, 논의가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肺의 治節 기능을 血脈을 다스리는 기능과 연계시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素問·經脈別論』에서 제시된 心과 肺의 기능을 연계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肺朝百脈

『素問·經脈別論』에는 食氣가 胃로 들어온 후 발생하는 순환 과정에서, 心과 肺가 연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食氣가 胃로 들어오면 濁氣(消化된 穀氣)가 心으로 몰려서, 脈으로 (收穀의) 精이 스며들게 된다. 脈氣가 經脈으로 흘러서 經氣가 肺로 몰려들면, 肺는 百脈으로 흘러보내 精을 皮毛로 수송하게 된다. 毛와 脈이 精을 合해 氣를 府로 보내면, 神明한 府의 精이 四藏에 머무르게 되어 四藏의 氣는 權衡을 이룬다. 權衡을 이루어 和平해지면 氣口가 寸을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써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한다.)<sup>12)</sup>

7)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43.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30.  
“肺與心皆居膈上, 位高近君, 猶之宰輔, 故稱相傳之官. 肺主氣, 氣調則營衛藏府無所不治, 故曰治節出焉. 節, 制也. 相, 去聲.”

9)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p.67-68.

10)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62.

“位高近君, 猶之相傳之官, 受朝百脈, 故治節由之出焉.”

11) 張琦 著.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81.

“肺位至高, 司氣而主皮毛, 治節由之, 故百脈皆上朝于肺.”

1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위 문장은 食氣가 胃로 들어온 후, 체내에서 소화·흡수의 순환 과정을 거쳐 四藏의 氣가 權衡을 이루게 되고, 이 과정을 거쳐 氣口脈을 통한 脈診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문장은 함축되어 있는 의미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역대 주석가들의 설명도 일치하지 않는다. 논자는 본 문장을 宗氣의 생성 과정 및 그 기능에 대한 설명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논자의 주장을 傍證할 수 있는 醫家의 설명을 기술하고, 이어서 논자의 논지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王冰은 본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濁氣, 穀氣也. 心居胃上, 故穀氣歸心, 淫溢精微入於脈也. 何者? 心主脈故. 言脈氣流連, 乃爲大經, 經氣歸宗, 上朝於肺, 肺爲華蓋, 位復居高, 治節由之, 故受百脈之朝會也. 「平人氣象論」曰, 藏眞高於肺, 以行營衛陰陽. 由此故肺朝百脈, 然乃布化精氣, 輸於皮毛矣. 府, 謂氣之所聚處也, 是謂氣海, 在兩乳間, 名曰膻中也. 膻中之布氣者分爲三隧, 其下者走於氣街, 上者走於息道, 宗氣留於海, 積於胸中, 命曰氣海也. 如是分化, 乃四藏安定, 三焦平均, 中外上下各得其所也. 三世脈法, 皆以三寸爲寸關尺之分, 故中外高下, 氣緒均平, 則氣口之脈而成寸也. 夫氣口者, 脈之大要會也, 百脈盡朝, 故以其分決死生也.(濁氣는 穀氣이다. 心은 胃의 上部에 居하고 있다. 때문에 穀氣가 心으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精微로운 氣가 흘러 넘쳐 脈으로 들어간다. 어째서인가? 心이 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脈氣가 흘러 운행되어야 大經이 되고, 經氣는 宗으로 몰려 위로 肺에 모인다. 肺는 華蓋가 되고 지위가 또 높으므로 治節이 거기서 나오고, 때문에 百脈의 朝會를 받는 것이다. 「平人氣象論」에서 말하길, “五藏의 眞氣가 肺로 올라가서 營衛를 陰陽으로 行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肺가 百脈을 朝會하고, 이에 精氣를 퍼뜨려 皮毛로 운행한다. 府는 氣가 모이는 곳을 말하니, 氣海를 말한다. 양쪽 젖가슴 사이에 있는데 이름을 膻中이라고 한다. 膻中이 氣를 퍼뜨리는 것은 세 길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로 가는 것은 氣街로 달려가고,

1981. p.86.

위로 가는 것은 息道로 달려가고, 宗氣는 氣海에 머물러 胸中에 쌓이니 氣海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분화해야 四藏이 안정되고 三焦가 화평하고 고르게 되어 中外와 上下가 각각 제자리를 얻게 된다. 三世의 脈法이 모두 三寸을 寸關尺으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中外와 高下에 氣가 고르고 화평하게 퍼지면 氣口의 脈이 寸을 이루게 된다. 무릇 氣口는 脈의 크고도 중요한 회합처로 百脈이 모두 朝會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氣口로써 죽고 사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다)<sup>13)</sup>

王冰은 食氣로부터 化生한 精氣가 心→脈→經을 거쳐 宗으로 몰려 위로 肺에 모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心과 肺의 精이 合해져, 그 氣를 보내게 되는 府에 대해 氣海인 膻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王冰은 비록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宗氣의 생성과정과 그 집적되는 부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水穀之中이라고의 설명와서 心→脈→經의 경로를 거쳐 肺로 모이면, 肺의 大氣(呼吸之中)와 合해져 宗氣를 형성하고, 그 宗氣는 胸中인 膻中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馬蒔는 좀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肺曰毛, 心曰脈, 毛脈合精而精氣行于府, 府者膻中也. 『靈樞·五味篇』謂大氣積于胸中. 「邪客篇」謂宗氣積于胸中. 「刺節眞邪篇」謂宗氣流于海者是也. 膻中爲府, 其精氣宗氣, 最爲神明, 而司呼吸, 行經隧, 始行于手太陰肺經, 通于心肝脾腎之四藏, 而四藏之精皆其所留.(肺와 관계되는 것을 毛라고 하였고, 心과 관계되는 것을 脈이라고 한 것이니, 毛와 脈이 精을 合하여 精氣를 府로 운행시키는데, 府는 膻中이다. 『靈樞·五味篇』에서 “大氣는 胸中에 쌓인다.”고 하였고, 「邪客篇」에서는 “宗氣는 胸中에 쌓인다.”고 하였으며, 「刺節眞邪篇」에서는 “宗氣는 바다로 흐른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膻中은 府가 되고, 그 精氣宗氣는 가장 神明스러워 呼吸을 담당하고 經隧를 운행시킨다. 手太陰肺經에서 行하기 시작

1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08-309.

하여 心肝脾腎의 四藏에 通하는데 四藏의 精이 모두 머무르는 곳이다.)<sup>14)</sup>

라고 하였다. 馬蒔는 心과 肺가 合한 精이 膻中으로 行하는데, 膻中으로 行하는 精氣를 분명하게 宗氣라고 언급한 것이니, 張介賓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sup>15)</sup>. 이상 醫家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면, 위에서 인용한 「經脈別論」의 문장은 宗氣의 생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宗氣가 氣口脈의 형성과 氣口脈을 통한 脈診에 관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經脈別論」의 문장을 宗氣와 연계시켜 이해할 경우, 우리는 본 문장에서 宗氣가 運行시키는 營衛의 運行을 찾아 낼 수 있다. 즉, “肺朝百脈, 輸精於皮毛”는 衛氣의 運行을 나타내는 것이고, “毛脈合精, 行氣于府. 府精神明, 留于四藏, 氣歸于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은 營氣의 運行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肺朝百脈”의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듯이 王冰은 “肺朝百脈”에 대해서 肺가 百脈의 朝會를 받는다고 해석하여, 百脈이 肺로 몰려드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醫家들이 王冰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宗氣에 의해 胸中으로부터 百脈으로 精氣가 퍼져가고 인체의 말단인 皮毛로 수송되는 것과 반대의 運行 경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 즉, 肺(여기서는 宗氣)의 推動 機能에 의해 百脈으로 精氣가 퍼져나가고, 皮毛로까지 精氣(衛氣)가 수송되어야 한다. 그런데 百脈이 肺로 몰려든다고 해석할 경우 일련의 運行 경로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또 胸中에서 皮毛로 精을 수송하는 機轉이 빠져버리게 된다. 이에 대해 『황제내경의 기원』에서는 “朝

字와 “潮”字는 假借字 혹은 通假字라는 주장을 하면서, 肺가 百脈으로 精을 수송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肺朝百脈”에 대해서 肺가 氣血 순환의 기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黃帝內經素問校釋』에서도 肺가 전신의 百脈으로 氣血을 수송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sup>17)</sup>, “肺朝百脈”의 해석은 肺, 구체적으로는 宗氣의 機能에 의해 氣血이 百脈으로 수송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以上에서 「靈蘭秘典論」의 “相傳之官, 治節出焉”의 의미와, 「經脈別論」의 宗氣와 관련된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마지막으로 이 두 내용을 연계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相傳之官, 治節出焉”에 대해, 대부분의 醫家들은 肺가 心을 보좌하는 藏府라고 하였고, 治節에 대해서는 營衛를 運行시키는 것과 연계시켰다. 이 내용을 「經脈別論」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宗氣의 機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經脈別論」에서 기술되었듯이 胃에서 소화·흡수된 穀氣가 心을 거쳐 胸中으로 오게 되면 肺의 呼吸之氣와 합해져 宗氣가 생성되어 膻中에 쌓이게 된다. 이와 같이 心과 肺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된 宗氣는 營衛의 運行을 推動하여 인체 전신의 氣血을 조절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宗氣의 작용을 治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靈蘭秘典論」의 “相傳之官, 治節出焉”의 의미는 氣를 주관하는 肺의 전체적인 機能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胸中에 쌓여 있는 宗氣의 機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III. 結論

『素問·靈蘭秘典論』에 記述된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의 내용 가운데 相傳之官의 의미에 대해서

1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66.

15)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57-58.

“肺主毛, 心主脈; 肺藏氣, 心生血. 一氣一血, 稱爲父母, 二藏獨居胸中, 故曰毛脈合精, 行氣于府. 府者, 氣聚之府也, 是謂氣海, 亦曰膻中. 宗氣積于肺, 神明出于心, 氣盛則神王, 故氣府之精爲神明, 神王則藏安, 故肺肝脾腎四藏, 無不賴神明之留而爲主宰, 然後藏氣咸得其平而歸于權衡矣. 權衡, 平也, 故曰主明則下安, 主不明則十二官危.”

16) 徐自漢 外 7人 2지음. 김기왕 外 2人 옮김.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306-315.

17)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07.

“血氣流行在經脈之中, 而到達于肺, 肺又將血氣輸送到全身百脈中去, 最後把精氣輸送到皮毛.”

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肺가 心과 함께 膻中 상부에 위치하면서 心을 輔佐하여 血을 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治節에 대해서는 肺가 氣를 주관하기 때문에 인체 전신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醫家도 있고, 營衛를 運行시키는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氣血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醫家도 있다.

한편, 『素問·經脈別論』에서는 胃에서 소화·흡수된 穀氣가 心과 脈, 그리고 經을 거쳐 胸中으로 오게 되면 肺의 呼吸之氣와 합쳐져 宗氣가 생성되어 膻中에 쌓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心과 肺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된 宗氣는 營衛의 運行을 推動하여 인체 전신의 氣血을 조절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宗氣의 작용을 治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靈蘭秘典論」의 “相傳之官，治節由焉”의 의미는 氣를 주관하는 肺의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胸中에 쌓여 있는 宗氣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34, 86.
2.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集文堂. 2005. p.179.
3.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67. pp.67-68.
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76, 166.
5.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

- 出版社. 1995. p.128. pp.308-309.
6.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84.
7.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43.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30. pp.57-58.
9.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62.
10. 張琦 著.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81.
11. 徐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지음.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306-315.
1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07.